

부활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EASTER SUNDAY

주후 2021년 4월 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55 장 “주님께 영광” (새 16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2 번 부활절 (Easter)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Mark) 16:9-14	조희연 집사
온라인찬양 Online Anthem	“부활절 칸타타 (Easter Cantata)”	찬양대
영어 설교 English Sermon		Will Purushotham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21) – 다른 모습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In A Different Form)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과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참된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매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전 15:3-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한글개역 **막 16:12-13**)

“Afterward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to two of them while they were walking in the country. These returned and reported it to the rest; but they did not believe them either.” (NIV **Make 16:12-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4 (주일)	4/5 (월)	4/6 (화)	4/7 (수)	4/8 (목)	4/9 (금)	4/10 (토)
	레7	레8	레9	레10	레11,12	레13	레14
본문	시7,8	시9	시10	시11,12	시13,14	시15,16	시17
	잠22	잠23	잠24	잠25	잠26	잠27	잠28
	살전1	살전2	살전3	살전4	살전5	살후1	살후2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4/7수 오후7:30)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고후 1:1-11)
토요 새벽기도회 (4/10금 오전6:30)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시 32:1-11)

지난 주일(3/28)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0) – 깨어 있음으로” (눅 12:35-48)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엡5:18)는 말씀과 더불어, “깨어 있으라”(마26:38)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특별히 한글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그레고레오(Gregoreo)”는 신약에 23번이 나오는데, (원래) 이 단어는 “Awake”의 의미 보다, “Keep Watch” “Be on the Alert” 즉, “주의 깊게 살피라”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 깊게 살피며? 무엇에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명) 종말론적 신앙(Eschatological faith)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1)첫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고(눅12:37), 2)둘째, 내적인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며(눅12:40), 3)셋째,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본문 37절, 38절, 그리고 4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福)이 있으리로다”하는 표현입니다. 즉, 1)자신의 신분(중)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 2)주인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3)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롬13:11)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은 (분명)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